

2021년 성 도미니코 축일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올해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사부 성 도미니코 축일을 지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금년에는 “성 도미니코의 식탁에서”라는 주제로 그의 천상 탄일 8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가장 오래된 성 도미니코의 초상으로부터 유래하며, 도미니칸 가족의 근본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공동 생활”을 반영합니다. 식탁 둘레에서 성 도미니코의 자녀들은 친교와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 도미니코에게 공동 생활은 근본적인 가치이며 기둥이었습니다. 수도회를 위한 규칙을 선택해야 할 때, 그는 수도자들에게 “한 집에서 살며 한 가족이 되어 하느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상기시키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규칙을 선택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은 우리의 사명과 설교가 힘을 얻는 기름진 토양이며, 그래서 그는 수련자들을 수도회에 받아들이기 전에 순명과 공동체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도미니코는 모든 것에서 사도들의 생활을 본받기를 원하여, 사도들의 첫 공동체를 형제들의 공동체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첫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도미니코는 공동체 생활을 온전히 살았습니다. 언제나 공동 생활의 모든 행위들에 참여했고, 모든 것에서 공동체의 뜻에 따랐습니다. 시성 조사의 증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에서 규칙을 준수했고, 쉽게 자신에게 관면을 주지 않았다. 성당과 식당, 그리고 다른 곳들에서 온전히 공동체를 따랐다.” “음식과 시간표에서 언제나 공동체를 따랐고, 자주 성당에서 기도하며 밤을 보냈지만 언제나 형제들과 함께 아침 기도에 함께 했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은 공동체의 행위들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 도미니코가 수녀들과 형제들에게 친밀하고 자상한 행동들을 보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 도미니코는 우리에게, 공동체 생활은 각 자매의 약함에 대해 애덕을 요구하고, 공동체의 모든 일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며,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며 모든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은 모든 것을 공유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노동의 결과인 물질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각 자매가 지닌 가치와 재능, 자질들을 공유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도우며, 공동선을 개인의 선의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성 도미니코가 공동체 생활의 모범이었다면 이는 그가 온전히 인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미니코의 인간성은 용기와 부드러움, 결단력과 개방성, 단호함과 동정심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요소들로 엮여져 있습니다.

도미니코는 많은 장애를 극복해야 했고, 삶에서 많은 역경을 이겨내야 했지만, 완고하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살았던 이들의 기억에 따르면, 도미니코는 인간적인 덕들인 부드러움과 민감함, 동정심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로움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도미니코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필요에 마음이 부서지고 뒤흔들렸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섰으며, 쉽게 다른 이들의 고통과 기쁨에 공감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들을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대했습니다. 내적으로 동정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불의와 다른 이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른 이들을 불행에서 구해주고자 했던 수많은 일화들을 알고 있습니다.

수도회 총장 제라르드 신부님은, 희년을 기념하는 서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 도미니코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코로나 19 감염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거리두기”의 구실이 될 수도 있는 지금의 상황 안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성 도미니코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약하고 가난하며, 겉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자매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인내롭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두려움, 걱정, 불안에 관심을 기울이며, 각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걱정을 말할 수 있게 해주며 존중과 친절함으로 그를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정도로 민감한 것은 아니고 같은 방식으로 “두려움”을 체험하지도 않으며, “강한 이들은 약한 이들의 약함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 도미니코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용기를 내어 서로에게 말하며, 우리 공동체의 걱정거리를 진솔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슬리는 것과 마음에 드는 것, 우리 형제들의 걱정거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지지해 주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행동과 태도, 말로 자신을 표현하고 성사화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인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부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간성과 자비를 표현할 때에만 우리는 사랑과 친교의 위대함을 증언할 수 있고, 인간의 불의와 가난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도미니코는 주변의 현실을 관찰했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투신했습니다.

도미니코에게서, 그가 함께 살았던 형제들을 받아들였듯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매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약함을 받아들이기를 배우고,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 안에 간혀 있지 않고 그가 했던 것처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우리의 눈과 귀, 품을 열어 놓읍시다.

성 도미니코는,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시대의 표징들을 식별하며 인간의 고통을 줄여 나가고자 힘쓰는 공동체들 안에서 기쁨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성 도미니코 축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 회년이 우리에게, 우리 사부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에서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적 포용과 기도를 보냅니다.

Sor M^a Asunción González O.P.
Sor M^a Asunción González, O.P.
Priora General

